



원하는 답을 필요한 답으로
이끌어주는 퍼블리셔

이상연

프로필

Lee Sang Yeon

1996년 07월 10일 생

e-mail : thissangyeon@gmail.com

P.H : +82 010 - 5710 - 7854

Github : @this-sangyeon

경력

2019.03 – 2021.02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전공

2016.07 – 2018.05

브랜딩 & 패키지디자인 업체 “Design-zone” 디자이너

2015.03 – 2017.02

신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전공

수상경력

2020년도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공모전

디지털미디어디자인 부문 입선

졸업 전시회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최우수상

졸업 전시회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PT 우수상

툴 사용

HTML / CSS / JavaScript

Adobe Illustrator / Photoshop / XD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이룬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조기취업을 통해 브랜딩 패키지 회사에서 2년가량 일하며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 팀원들과 협업을 하며 협동심을 길렀습니다. 조기 취업으로 인해 학업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항상 남았던 때에 웹/앱 ui ux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시키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퇴사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대학에 진학하면서 해보고 싶던 것을 다 해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다루던 툴 외에 새롭게 배운 툴을 활용하여 작업물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연습과 실패, 반복된 도전을 통해 저는 목표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야무진 사람”

평소 “**대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만큼 언제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한 뒤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포기보단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정맨**”이라는 별명을 앞세워 항상 열정과 최선을 담아 임합니다. 또한, 무턱대고 시작하지 않고 1부터 100까지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한 뒤, 작업을 시작하였고 결과는 만족스러운 작업물과 성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생 시절, 과 대표를 맡으며 **리더쉽**을 길렀습니다. 과 대표로서 튼튼한 다리처럼 교수와 학생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고 실현했습니다. 또한, 생각이 깊어 해답을 찾고자 할 때 한없이 신중해지고 오랜 생각을 한 뒤, 답을 내리는 편입니다. 이는 스스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을 좋아하여 상대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답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로를 이끌어주다 라는 뜻을 담은 제 이름 “상연”처럼 사용자와 콘텐츠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퍼블리셔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원하는 답을 필요한 답으로”

저의 야무짐을 통해 **서로 소통과 감정 공유가 원활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퍼블리셔**가 되겠습니다. 코딩을 처음 접했을 땐 정해진 기능이 있으니 무조건 이 식으로 해야만 기능이 구현되는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배움이 늘을수록, 꼭 어떠한 방법만이 정답이 아닌 다양한 정답이 많구나 깨닫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옳은 값을 향해 다양한 시도를 반복하여 성장하는 저는 코딩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쌓아올린 구조 위로 하나하나 천을 덜대어 옷을 만든 뒤, 거듭되는 오류를 해결하여 기능을 구현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치 저의 성장과정과도 같습니다.

코딩의 가장 좋은 점은 어떠한 방법을 써도 그게 꼭 명확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답을 주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퍼블리셔를 목표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